

인터넷진흥원 내달 3일 본격 업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완료

15번째 혁신도시 입주 기관

개청식 다음달 20일 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오는 7월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청식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KISA는 23일 경영기획본부, 정보보호산업본부, 감사실 등의 이전을 마치고 오는

30일에는 인터넷기반·개인정보보호본부, 인프라보호단을 마쳐 이전할 예정이다.

신청사로 옮겨 근무하는 인원은 임·직원 47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550명이다. 사이버침해대응본부와 개인정보침해조사, 정보보안수준인증 관련 인력은 수도권 업무를 위해 서울청사에 남는다.

인력 이동과 함께 수도권에서 분산 운영하던 서버·네트워크시스템 2400여대 중 1200여대는 지난 1일부터 3차에 걸쳐 신청사 통합데이터센터로 옮겼고, 나머지 정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KISA는 청사매각 등의 이유로 이전이 미뤄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3년 늦게 입주를 완료하게 됐다. KISA가 나주에 동지를 옮길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 대상기관 중 현재 미이전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곳만 남았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2018년 8월경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혁신도시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48억 확보... 7월말 개소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콘텐츠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라남도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전라북도와 함께 최종 관문을 통과, 각각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한국전력공사 앞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을 임차해 7월 말 개소식을 갖고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186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의 관광 문화유산을 VR콘텐츠와 결합, 콘텐츠산업의 불모

지인 전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VR 콘텐츠 분야의 선도기업인 (주)바른손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도 콘텐츠산업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관광장은 “콘텐츠산업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맞출산업’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OK! CALL-ME’ 이동창업지원단 발대식 22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OK! CALL-ME’ 이동창업지원단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이동창업지원단은 창업 희망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시 동구 제공>

영암에 최신 전자경매시스템 가축시장 문 연다

도포면에 ... 오늘 개장

영암에 최신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춘 가축시장을 신축해 22일 준공식을 개최, 23일 첫 개장한다.

영암축협은 1990년까지 영암 독천가축시장을 운영하다 폐쇄한 후 2006년 10월부터 나주 영산포가축시장을 임차해 매일 1회씩 운영해왔다.

영암은 전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약 4만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내 우량 송아지 등을 거래할 가축시장이 없어 지역민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 도포면에 국비 9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경매시스템 등 현대화시설을 갖춘 영암축협 가축시장을 개설했다.

영암축협 가축시장은 1만5238㎡ 부지에 건축 면적이 1797.42㎡이며, 1일 356마리를 전자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차량 소독시설, 123대의 주차 공간도 있다.

영암군 거점소독시설 역할도 수행한다. 매일 6회 개장하고, 23일에는 혈통 등록 송아지를 경매한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영암 가축시장 개설로 우량 소 거래가 활성화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가축시장의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우 개량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에는 모두 15곳의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2곳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이용해 한우를 거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文대통령 취임 후 ‘국민’·‘일자리’·‘경제’ 최다 언급

한국언론진흥재단 분석

인사·국정 최우선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22일 내놓은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선 인사를 한 지난 5월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일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988회), ‘일자리’(386회), ‘경제’(374회)다.

빅데이터팀은 이 기간 문 대통령의 발언

내역을 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추출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는지 빈도를 집계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대통령 당선 인사에서 강조된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 “국민만 보고 바른길로 가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의로운 통일을 이루겠다” 등 국민을 중심에 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경제 단어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정규직’(169

회)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자주 등장한 키워드다.

또 ‘성정’(90회), ‘재벌’(51회)도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171회), ‘도발’(164회) 단어가 많이 쓰였다. 해당 단어들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나왔다.

취임 후 진행된 인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103회), ‘통합’(88회) 키워드를 자주 말했다.

지난달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틀 뒤 경제, 외교분야 인사 발표 때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예다.

통합 키워드는 인사의 대원칙을 말할 때 자주 나왔다. “대통령, 대통령의 자세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사 차별이아말로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막는 적폐” 등이 통합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대표적 발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세계인구 2023년 80억 돌파

인도, 2024년 중국 추월

한국 2035년부터 감소

세계 인구가 거듭 증가해 2023년 80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이 발표한 2017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5000만명이다.

중국이 14억1000만명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인도(13억3900만명), 미국(3억2400만명), 인도네시아(2억6000만명), 브라질(2억900만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5098만2천명으로 세계 인구의 7%를 차지하는 27개국 중 가장 마지막에 들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억2700만명으로

11위에 올랐다.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3000만명으로 80억명을 처음 돌파한 뒤 2037년 9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024년 인구가 14억3800만 명을 기록해 중국(14억3600만명)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26개국의 인구가 2050년까지 최소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인구가 서서히 늘다가 2034년 5282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예정이다. 2100년 38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52년에는 4994만명으로 5000만명 선 아래로 내려선 뒤 2091년 3999만명으로 4000만명선마저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2100년에는 387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신재민대표의 특별세미나

성공적인 토지투자를 위한 실전투자법

2017년 토지보상 19조!
토지투자 기회는 지금이다!

전국 아파트시장의 전망

황금알을 낳는 토지투자 트렌드 분석

수익형 / 차익형 유리한 투자방법은?

대한민국 개발지 분석비법 공개!

전문가의 1:1 무료 자산상담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8~309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광주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5분출구 직진 220m도보)
수원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벨류하이엔드호텔 6층 (분당선 수원시청역 10분 출구 200m직진) / 버스: 국민연금공단, 경인일보정류장 앞)



부동산 가치분석 전문가
신재민 대표의 방송안내

매일경제 TV “생방송 부동산” 출연중

- 생방송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 재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시

OBS “행복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해 온 신재민 전문가 앞으로는 매일경제TV “생방송부동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